

95 미술의 해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석조 미술

경기도에 있는 사(寺) 대웅전 앞에는 몇년전 새로 석탑이 세워졌다. 신라시대의 석탑 모형을 본떠 만든 이 탑은 대리석으로 조성한 것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조성했다. 그러나 그후 사(寺)는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재로 선 탑이 절 분위기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고색창연한 절이 뭔가 균형을 잃은 느낌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사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문화의 꽃을 이룬 시기였으며 이 시기에 조성된 석조물들의 극치미에 대

안목과 사명감을 가진 작가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것.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석조물 기능인은 10명이 넘지 않는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의 부재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기존 작품에 대한 지나친 모방과 답습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골목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석조물의 최대 수용자인 스님들의 안목과 불사의 관행도 석조미술의 발전을 끌어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찰의 역사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미학적인 가치와 신앙적 의미를 갖는 조형물을 세우기 보

생활불교 표현한 작품 나와야 전문가부족 기존 답습지양할때

해서는 재문의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석조미술은 그 '번지수' 미치지 못한다는게 미술계의 주장이다.

불교미술의 퇴보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는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여불정책의 영향으로 전통 석조 조형기법의 맥이 매우 일관하게 유지돼 조선 후기에는 왕실의 숭상에 상징물을 다듬는 정도로 기울었던 것. 그러나 '오허려 일제시대에 각종 석조건물이 건립되며 석조 조형의 맥이 조금씩 살아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현대의 불교 석조미술은 그 일관한 맥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와 반대로 전체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인에 의한 복제품만이 양산되고 있어 역사적 현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형상성의 결여는 예술적

다는 '재정사정에 맞춰서' 또는 '어느 절의 것과 비슷하게' 주문되어 일반석조상에 의해 제작된 탑과 불상 부도 등을 경내에 세우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내에는 반드시 답과 불상등만 세워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불교석조미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술품으로서의 가치와 신앙성을 함께 갖춘 작품들을 경내에 건립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불교미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대체적인 의견이다.

불교예술의 대표적 위치를 굳혔던 석조미술이 '오늘의 석조예술'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종사자들과 승·제가의 깊이 있는 관심이 필수적이다. 그 관심의 요체는 곧 불교사상을 품에다 심어내는 것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육성책도 절실하다는게 관련 학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태>

문체부, 내년 '문학의 해'로 지정

불교문학 중흥기회 삼자

작가 양성대책 수립...소재·독자층 확대해야

문체부가 지난 1일, 내년을 '문학의 해'로 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불교문학계에서도 내년을 불교문학 중흥의 해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체부의 발표가 나오자 문단의 관계자들이 '문학의 해'를 계기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불교문학계도 보다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불교문학 작가와 단체들의 공통인식이다. 우리 문단에서 종교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각 종교계는 문학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작품 양산과 홍보에도 신경을 써 왔다.

불교계에도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단체와 문인이 적지 않다. 불교문인협회와 불교문학 포교원, 어린이 불

교문학 단체들이 일정한 여건 속에서 꾸준한 활동을 해 왔던 것. 이같은 단체외에도 불교를 자신의 문학작품의 테마로써 꾸준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불교문단'이라할 만큼의 조직이나 작가에 대한 관심은 불교계에 자리잡지 못한게 현실이다. 때문에 불교문학 중흥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소극적으로나마 형성돼 있었다.

'불교문학도 이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보다 뚜렷한 색채를 가져야 한다'는 하유상(불교문인협회 고문)씨는 "기왕 정부가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인 만큼 불교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문학의 도약을 위해 현재 대두되고 있는 과제들은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는 불교문학의 질적 성장. 경전이 나 부처님 일대기, 수행승 또는 경전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현재의 불교문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로 좀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교의 사상이 어떤 장르에서든 지나치게 어렵게만 용해되는 경향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번째 과제로는 불교문학 작품의 영역 넓히기가 꼽힌다. 이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소재 확산과 독자층의 확대란 시각에서 매우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즉 불교라는 범위 안에서 문학적 가치창조가 작가가 재량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독자층의 선호도도 향상시

켜 나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해외로의 번역 소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번째로는 작가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불교문학 전문작가의 보호와 양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문제는 교계의 문학단체와 종단, 불자 모두가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또한 불교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강연과 출판사들의 기획, 종단의 지원, 시상제도의 활성화등도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게 불교문학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문학의 해'를 앞두고 불교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단체의 구성등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연태 기자>

불심시심 <18>

꿈 속의 한 몸

標渺三山洞 (표묘삼산동)	아슬히 깊은 크기의 꿈
類然一夢身 (류연일몽신)	비스듬히 누운 꿈 속의 한 몸
海天秋欲暮 (해천추욕무)	가을도 저물어가는 바다 하늘
千里見情人 (천리견정인)	천리에서 보이는 정다운 사람

이 시는 조선 중기 청허당과 함께 부용선사(夫容)의 법맥을 이은 부휴(浮休)대사의 시이다. 그러면서도 청허당보다 23세의 연하였기 때문에 사명당(四冥堂)과 오히려 활동이 많다. 부휴당은 이렇듯 청허당과 생맥을 이루는 하나의 선맥을 형성하였다.

윗 시는 대사가 고향의 스님의 시집에다 써 준 시 5수중의 하나이다. 옛 친구일 수도 있는 고향의 스님에게 써 준 시라면 그리움의 감성어린 시어로 짐작될 듯하나 어디에도 그런 감상은 배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전편에 흐르고 있는 시의 의는 이쪽과 저쪽이라는 너와 나의 처지를 짐작케 한다.

직접 만나서 주고 받는 시가 아니고 그가 남겨놓은 시집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득한 연상으로부터만 나게 된다. 아득히 느껴지는 저 삼산의 깊은 꿈, 그 안에 비스듬히 누워 있을 그때, 꿈 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신선이 느껴진다. 신선과 신선의 그리움이다. 이 기·승구는

구상자체가 재미있다. 기구와 승구는 '덧구로 이루어져 있다. 덧구란 사물의 대칭구조로서 대비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시에 있어서는 삼산의 끝이나, 한 꿈 속 사람이 대칭이 아닌 상대방의 스님에 대한 표현이다. 삼산중에 있을 그때의 아득함이다. 이렇듯 두조는 덧구이지만 시의는 순리적 평서술이다. 여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정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절구의 정다운 사람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저물어 가는 가을바다는 쓸쓸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지는 계절적 변화이다. 그러나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정다운 옛 친구가 있다. 이쪽과 저쪽 천리 밖의 거리이지만 정다운 사람이 보인다.

가을날에 접하는 일상적인 자연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 잠잠한 그리움을 담은 담백한 시이다.

이중천 <동국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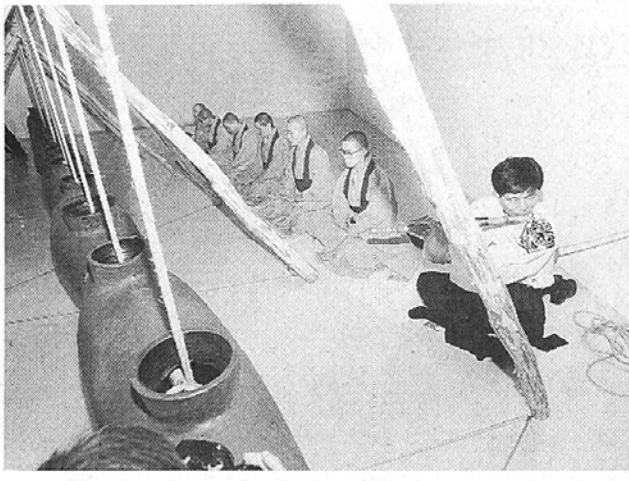
곽 훈씨 '마르코폴로가'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할 곽훈씨의 이벤트미술 「마르코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이 지난 1일 동충동인 공평갤러리에서 선보였다.

웅기통소와 합성하는 비구니 스님 김영동씨의 대금연주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마르코폴로가...」는 소리와 선(禪)의 세계를 합일시킨 이벤트 미술. 마르코폴로가 가져오지 못했던 동양의 정신을 표현한 이 작품은 돋보이는 기획성으로 미술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 전시는 30일까지 계속된다. 비구니 스님(10명)의 합성과 김영동씨의 연주는 지난 1일 한차례만 선보였지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행사기간 중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 <상보 23호 5면>

<박재환 기자>



禪 음악·웅기통소·합

오름 실내악단 풍속 음악회

26일 국립극장 소극장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악찬불가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름 실내악단 풍속음악회는 우리의 선율이 갖는 아름다움과 불법(佛法)을 찬탄하는 불자들의 서원이 조화롭게 연주되는 예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꽃향기 세상을 뒤덮은 4월의 경위와 부처님 오신 뜻을 찬탄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한 편의 시로 엮여질 오름 실내악단 초청 풍속음악회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1995년 4월 26일 오후 7시30분
장소 : 국립극장 소극장

공연 내용

- 제 1부 : △승무·법고춤 △찬불대중가요 △찬불동요 △전통불가조 △한반도의 들노래
- 제 2부 : △전통 불가조 △남성북사중창 △찬불국악가요 △찬불가
- 출연 : 김진환, 경기고, 이상균, 김영복, 불교방송합창단 등.
- 지휘 : 김희경
- 특별출연 : 안숙선 명창, 덕신스님
- 후원 : 조계종총무원·불교방송
- 기획 : 누메로우노

현대불교신문사

전원문화사
121-110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8-6
전화 704-1626, 1628 팩스 718-2837

'禪 판화' 20년만에 햇빛

故 장욱진 화백 '선시리즈' 호암아트홀 내달 14일까지

고(故) 장욱진화백의 선(禪)을 주제로한 선시리즈 목판화가 20년만에 세상에 첫선을 보이고 있다.

민화연구가인 김철순씨와 손잡고 한국 특유의 선사상을 알리기 위해 의욕적으로 제작했던 장욱진의 선시리즈 목판화는 지난 4일부터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장욱진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장욱진 기념사업 도민회원들이 관화간행을 도모하면서 호암미술관의 후원을 얻어 세상에 공개하게 된 것이다. 또한 목판화집도 출간하게 됐다.

인생관, 예술관, 세계관 그 자체가 금강경의 정신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 받는 장욱진은 '일종일체(一中一切)'

'직지인심(直指人心)' 등 21개의 화두를 상징한 판화를 제작, 73년부터 75년에 걸쳐 50여점의 밑그림을 그렸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50여점의 밑그림을 엄선된 26점만이 전시, 장욱진의 화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 먹그림, 매직화, 돌그림, 포지화 등 1백50여점의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다. 「팔상도」 사할(77년, 78년) 2편, 장욱진 부인의 범명을 딴 「진진묘(眞眞妙)」 등의 작품에는 선사상뿐 아니라 번잡한 세계를 떠나 피안의 세계로 가려는 작가의 심상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

5월14일까지 계속되는 「장욱진전」에는 심포지엄, 작가 생전화실 탐방, 비디

국악으로 禪音 전달한다

서울시립관현악단 30주년 연주 13일 세종문화회관

국악 '신수제전' '영산회상'과 일인까지 일반문화관(종이일본 판화문사육)에서 열렸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1백37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대전사와 기암」(김종욱, 임선), 「내장사 전경」(유병률, 임선) 등 사찰소재 작품 6점도 선보였다.

국악 '신수제전' '영산회상'과 일인까지 일반문화관(종이일본 판화문사육)에서 열렸다.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작품 1백37점이 전시된 이번 전시회에는 「대전사와 기암」(김종욱, 임선), 「내장사 전경」(유병률, 임선) 등 사찰소재 작품 6점도 선보였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단장 김영동)은 창단 30주년을 맞아 2백회기념특별연주회를 오는 13일 오후7시30분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공연의 1부는 김영동씨가 편곡한

<문의=3991-667>



장욱진화백의 「팔상도」.

절에 가서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百年 貪物 一朝 塵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사찰과 부처님과 불교 -

부처사 조실 송원인·강수 / 절법 권영환·지음

스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부처님께 예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각 건물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많은 부처님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도량의 권속들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벽하나 탕화의 숨은 뜻은 무엇인가?
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三 日 修 心 千 載 寶

늘 공해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와 여유를 찾아 산으로 떠나보십시오.

울창한 숲과 오묘한 바위, 우아한 계곡과 산승선, 그윽한 풀과 나무 냄새, 그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산을 찾는 사람은 꼭 절을 찾게 됩니다. 절은 산속에서도 가장 경치 좋고 터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이 곧 절이고 절이 바로 산입니다. 결코 틀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눈앞에 들어오는 여러 건물과 불상, 탑과 벽화들을 무심코 지나치게 됩니다. 또 어떤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의 참모습과 의미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떠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놓쳐 버렸던 불은(佛恩)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울림리 376번 길 15,000원